

임진강 유역의 나루터와 포구



파주지역문화연구소

임진강 나루터 · 포구

□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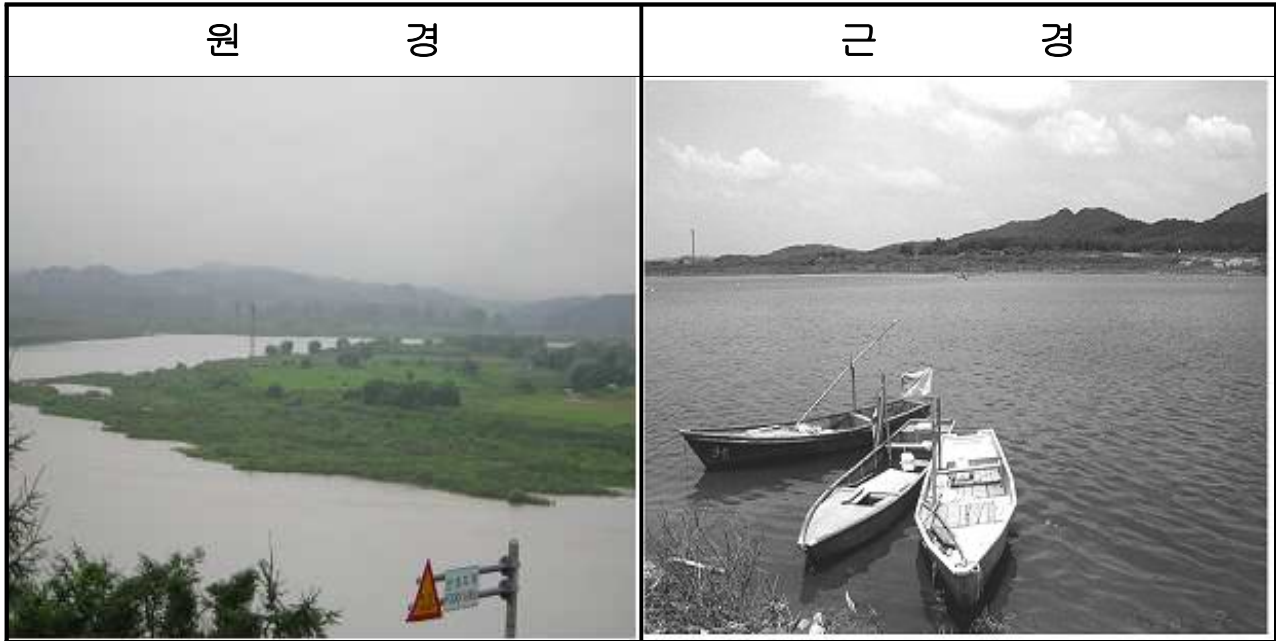
- 명 칭 : 임진(臨津) 나루
(옛지명 : 임진도<臨津渡>, 현지명 : 임진나루)
-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 주요기능 : 임진강 유역의 대표적 나루로 관북과 관서지방으로의 분기점이 되었으며 임진진을 두어 관리하였고 중앙정부의 총융청에 소속됨
- 번영정도 : 한양에서 송도를 거쳐 의주로 가는 주요 길목
- 배의 종류 및 수량 :

□ 관련 이야기[전설 · 구전 · 역사적 사실 포함]

- 『대동지지』 파주조에 주의 북으로 15리에 있으며 울곡리 화석정 아래에 있다고 기록됨.
- 파평면 울곡리 화석정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임진왜란때 선조의 의주파천의 길목이며 고려 , 조선시대 개성과 한양을 오가는 주요 길목임. 현재는 군부대가 주둔하며 고깃배가 드나드는 곳임.
- 임진나루 뱃사공의 전설
 - 임진나루는 옛날 한양에서 송도를 거쳐 의주로 가는 국도로서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다. 여기에서 뱃사공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다보니 옷차림과 거동만 보아도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아 맞추기로 유명하였다. 그리하여 다른데에서 뱃사공 노릇을 하는 짓궂은 사람이 하루는 얼마나 잘 알아보는지 시험을 하고자 신분을 속이고 양반으로 가장 의관을 갖추고 임진나루 뱃사공을 찾아 ‘여보게 나를 좀 배로 건너주게’ 하고 반말을 하였다. 그러나 김씨라는 뱃사공은 부지런히 배를 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누구한테 반말이냐!’며 화를 내는지라 그리하여 변장한 양반이 하는 말이 ‘이놈아, 감히 누구 안전에서 행패냐!’ 하니 ‘너는 아무리 양반인체 하여도 나와 같은 뱃놈에 불과하다.’ 하였다.
‘그래 네가 어찌 그런 것을 잘 아느냐?’ 하고 반문하니, 임진강 뱃사공이 하는 말이 ‘너는 수영이 한쪽으로 구부러졌고 노를 젓느라 고개가 돌아간 것이며 강바람에 수영이 돌아간 것을 보아 너는 나와 같은 뱃사공이 아니냐?’ 하니 참으로 귀

신같이 맞힌다면서 꺾꺾대며 서로 웃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 **현재 포구**



문산포

□ 개요

- 명 칭 : 문산포(汶山浦)
(옛지명 : 문산포<汶山浦>, 현지명 : 문산 하동<汶山 下洞>)
-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문산2리
- 주요기능 : 상선배와 농산물의 물물 교환지로 수운(水運)의 중심지로 대시장 형성
- 번영정도 : 황해도 및 연천지역으로 가는 물산의 집산지로서 대규모 상권이 형성되었고 조깃배와 지방산물을 실어 나르는 황포돛배가 끊이질 않았던 곳임
- 배의 종류 및 수량 : 조깃배, 황포돛배

□ 관련 이야기(전설 · 구전 · 역사적 사실 포함)

- 문산포는 일제시대 이전까지도 연천 고랑포와 황해도 지역으로 드나드는 물산이 집결되었던 곳으로 대규모 상권이 형성되었던 곳임
- 최근까지 문산포에서는 풍어, 풍농, 시장번영을 기원하는 문산포도당굿이 열리기도 함(현재는 포구로서의 기능 상실)
- 문산포에 얽힌 유래
 - 이 지역 문산포는 삼국시대로부터 문산읍 선유리 동초등학교 자리에 술이홀현, 서원군 원평군 원평도호부 청사가 있을 당시 사목리 포구를 통하여 장단을 왕래하였다. 임진강의 강 흐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문산읍 하동에 포구를 설치 수운(水運)의 중심으로서 풍덕, 김포, 강하, 고랑포, 연천, 송도와 한양등지를 황포 돛대로 왕래하면서 상선배와 농산물의 물물교환의 집결지로 대시장이 형성되어 호황을 이루고 이어 내려왔다. 따라서 당동리에 여러 무당이 집결 해마다 호대감 놀이를 베풀어 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자주 이곳을 찾아온다.
 - 이에 따라 조선조 개국이후 원평도호부 청사는 파주목으로 승격됨에 따

라 파주읍 주내동으로 이전되었으나 경의선 복선으로 인하여 더욱 번창하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 현재 포구



낙하나루

□ 개 요

- 명 칭 : 낙하(洛河)나루
(옛지명 : 낙하도<洛河渡>, 현지명 : 낙하<洛河>)
- 위 치 :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 주요기능 : 서울과 개성간의 길목
- 번영정도 :
- 배의 종류 및 수량 :

□ 관련 이야기[전설 · 구전 · 역사적 사실 포함]

- 교하 북쪽으로 20리에 있으며 고려때 남쪽으로 향하는 대로가 이 나루를 통하였다 는 기록이 『대동지지』 교하조에 보임. 『대동지지』 장단조에 낙하진(洛河津)이 란 명칭이 중복되어 보이는데, 덕진(德津) 하류에 있으며 교하와 통하는 길이라 하였 음.
- 현재 탄현면 낙하리 임진강변에 위치하며 장단면 석곶리로 통하였고 서울과 개성간의 큰 길목으로서 도승(渡丞)을 두어 관리하였다고 함.

□ 현재 포구

전 경



두지나루

□ 개 요

- 명 칭 : 두지(斗只)나루
(옛지명 : 두지나루<斗只津>, 현지명 : 두지나루)
- 위 치 :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
- 주요기능 : 한국전쟁 이전 생필품과 승객을 나르던 중요 운송지
(연천군 백학면 원당리 고랑포로 가던 나루터)
- 번영정도 :
- 배의 종류 및 수량 :

□ 관련 이야기[전설 · 구전 · 역사적 사실 포함]

- 장단의 고랑포로 가던 나루터
- 현재 사용 여부
 - 조선시대 주요 운송수단이었던 황포돛배를 원형 그대로 되살려 임진강 두지리에 서 자장리까지 승선하여 내려오는 황포돛배 나룻배 투어는 40여분간 "임진8경"의 절경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 특히 60만년 전 형성된 높이 10m의 붉은 수직절벽이 장관을 이루는 '임진적벽'을 가까이서 구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단 50년간 민간인 출입이 통제 됐던 임진강에 관광객이 처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 현재 포구



반석나루

□ 개요

- 명 칭 : 반석(盤石)나루
- 위 치 :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 주요기능 : 많은 선인들의 집결지로 상도의, 상술 등의 정보 교환
- 번영정도 : 제2의 인천이라 부를 만큼 고깃배들이 밀려들었고 양곡의 집산지였음
- 배의 종류 및 수량 : 고깃배, 상선(商船)

□ 관련 이야기(전설 · 구전 · 역사적 사실 포함)

- 임진강과 한강이 마주치는 곳의 포구였다. 강변에 안방 같은 큰 바위가 많이 깔려 있다고 하여 붙은 지명이다. 서해에서 오는 배와 임진강을 올라가는 배, 그리고 한강을 오르내리는 배가 반드시 이곳에 기항하여 쉬어갔다 한다. 이유는 이 반석에 이르면 물이 바뀌어 썰물 때가 되면 한강이나 임진강을 갈 배는 다음 밀물을 기다렸다가 일제히 출항했기 때문이다. 두 방향의 배가 반드시 이곳에 귀항하기 마련이므로 자연히 고깃배들이 밀려들었고 양곡의 집산지였다. 선인(船人)들의 안식처로 기분풀이를 조성하고 많은 돈이 오고가고 하던 이곳엔 많은 주막과 시장이 번창하였으며 상도의와 상술, 정보를 교환하던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다. 일제가 양곡을 통제하여 식량난에 허덕일 때도 이곳만은 쌀이 넉넉하였으니 그것은 장명산에서 생산된 석회석을 서울로 운반하여 불합격된 들을 도로 신고 돌아올 때 배 밑에다 공출한 쌀을 감추어 돌아와서 나누어 먹었기 때문이다. 또 이곳에 진달래를 집단으로 재배하여 진달래밭을 만들었기에 경치가 좋았고 각종 행락소가 준비하던 곳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휴전선이 그어져 배의 운행이 중단되었고 왕래를 할 수 없는 군사통제구역이 되어버렸다.

□ 현재 포구

사진 없음

저포진

□ 개 요

- 명 칭 : 저포진(猪浦津)
(옛지명 : 저포나루<猪浦津>, 현지명 : 저포나루. 독개나루)
-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 주요기능 :
- 번영정도 :
- 배의 종류 및 수량 :

□ 관련 이야기(전설 · 구전 · 역사적 사실 포함)

- 『대동지지』 파주조에 서쪽으로 15리에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저포라 하여 임진도 하류에 있다고 하였다. 일명 독개나루라 하였으며 문산읍 마정리에서 장단군으로 건너가던 나루였는데 현재는 자유의 다리가 놓여짐으로 인해 폐해졌다고 함.

□ 현재 포구

전 경



쇠곶나루

□ 개요

- 명 칭 : 쇠곶(金串)나루
- 위 치 : 파주시 금촌2동
- 주요기능 :
- 번영정도 :
- 배의 종류 및 수량 : 상선(商船)

□ 관련 이야기(전설 · 구전 · 역사적 사실 포함)

- 곡릉천의 맑은 시냇물이 쇠재독암뜰을 거쳐 흐르는 새재개울(金城川)은 금촌에서 교하로 건너 다니는 쇠곶나루를 거치게 된다. 옛날 교하군청이 금성리에 있을 당시 상선배(商船)가 쇠재를 오르내리었으나 매년 홍수로 말미암아 쇠재개울이 매몰되기 시작하자 이곳 쇠곶나루(金串津)에 상선배가 머무르게 되니 현 은행나무 사두혈(蛇頭血)이 있는 지역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짹짹한 시장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지역 내 많은 돈이 득실 거렸다고하여 금이 꽂힌 쇠곶(金串)이라 칭하게 되었으나 구한말 행정구역 변경당시 뱀꼬리(蛇尾)부분에 신화만발형(新花滿發型)의 산소자리가 있다는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쇠곶(金串)은 신화(新花)로 개칭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 현재 포구

사진 없음